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 단기종단적 연구*

Developmental Results of Generative Fathering and Attachment Security

이 영 환**
Yee, Young Hwa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diction of fathering and child's attachment to father based on socio-emotional competence and father-child relationship. Fifty-five toddlers and their parents were assessed by the Generative Fathering Questionnaire (Yee et al., 1999) and the Attachment Security Q Set (Waters, 1987) when the children were 2 years old.

After 12 months, the child's socio-emotional competence and father-child relationship were assessed by questionnaire. The child's socio-emotional competence was predicted by father'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hild rearing but not by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ttachment security partly predicted child's socio-emotional competence and father-child relationship. Among the sub-categories of father-child relationship, warmth and closeness of the relationship was related to child's socio-emotional competence.

Key Words

애착안정성(Attachment Security), 생산적인 아버지노릇(Generative Fathering), 사회정서발달 (Socio-Emotional Competence)

I. 서론

유아-어머니 관계는 '이후의 애정관계의 원형' 이 된다는 Freud의 주장은 애착이론에서 모든 다른 관계를 배제하고 유아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 이 연구는 1998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 전공 부교수

유아-양육자 관계에 대한 관심이 신체적 돌봄으로부터 애착의 질로 바뀔에 따라 애착이론가들은 양육 의무를 가정하지 않는, 예컨대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을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유아발달에서 아버지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할 뿐 아니라, 아버지노릇이 어머니노릇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Geiger, 1996; Pruett, 2000). 즉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할 뿐 아니라,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놀이할 때 더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더 반긴다고 보고한다. 또한 낯선 상황에서 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다르게 행동하며 질적으로 다른 애착 관계를 보인다(Bridges, Connell & Belsky, 1988).

사실 애착이론가들은 유아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또는 다른 양육자에게도 접근하며, 이로부터 양육행동을 이끌기 위해 울기, 소리내기, 미소짓기, 매달리기와 같은 신호를 방출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유아의 신호에 대한 양육자의 일관적이고 신속한 반응은 유아로 하여금 양육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지각하게 해주며 안정애착의 기초를 이루지만, 예측할 수 없고 비일관적인 반응은 불안애착을 야기한다. 따라서 양육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양식은 유아에게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하며 서로 다른 질과 양식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한다(Bretherton, 1985). 이처럼 관계의 질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역사에 기초한다고 볼 때 애착연구에서는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어머니 관계의 독립성(관계의 특수성),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어머니 관계의 상대적 중요성(관계의 위계성),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어머니 관계의 연합적 및 상보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Easterbrooks & Goldberg, 1990).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애착 연

구에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포함되어야 한다(Verschueren & Marcoen, 1999).

한편 Snarey(1993)는 Erikson의 생산성 개념을 자녀양육과 연관지어, 아버지역할을 자녀의 발달과정을 능동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아버지들은 자신으로부터 자녀에게 관심을 확대시킴으로써 자녀의 발달과정을 능동적으로 돌보아주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양육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개인차를 낳는 주요인이 됨은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당연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영아기에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이후의 발달과정에서 더 적절한 적응을 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영아기에 낯선 상황에서 측정된 애착유형은 2세 때에 측정된 유아의 문제해결과정(Matias, Arend, & Sroufe, 1978),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행동문제(Erikson, Sroufe, Egland, 1985)를 예측하였다. 애착 연구들이 영아기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이후의 유아 발달을 예측함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온 경향과 달리 국내 애착 연구들은 유아의 애착 상태와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Waters(1987)의 애착 Q-Set으로 측정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자아지각(유효순, 1996; 박상미, 1999), 사회적 능력(박용임, 1998), 정서적 행동문제(김영명, 1997)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다. 격리와 재결합 절차를 사용한 홍계옥, 최경순(1996), 조복희, 양연숙, 김임이, 장미자, 광혜경, 한유미(1997)는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를 살폈다. 조은영(1996), 이숙희, 김숙령(1996)은 격리 불안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유아의 애착이 사회적

을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이진숙(2001)은 Story-telling을 통해 측정한 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부분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국내 애착 연구는 유아기의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애착을 측정하여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외국의 애착 연구에서처럼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애착의 발달적 결과를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애착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 박용업, 유명희(1997), 이영환(1996) 연구는 영아기에 측정한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 유형이 유아기 애착 Q-Set으로 측정한 애착안정성을 예측하는지에 초점을 둬으로써 애착의 지속성을 살피는데 그쳤으며, 애착의 발달적 결과는 파악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아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과 애착의 질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단기 종단적 연구이다. 즉, 3세 때 측정한 생산적인 아버지와 유아

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12개월 후인 4세 때 측정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유아-아버지 관계를 예측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은 유아-아버지 관계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은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은 유아-아버지 관계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5.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55쌍의 유아-부모는 1차 연구인 이영환(1999) 연구대상 중 일부이다. 유아 연령은 36-47개월이 51명으로 92.8%를 차지하며, 출생순위별로 보면 첫째가 45.5%(25명) 둘째가 47.3%(26명), 성별은 남아가 60%(33명), 여아가 40%(22명)이다. 아버지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 85.5%로 고소득층은 아니지만, 전문직과 사무직(64.7%) 종사자가 많으며 77.3%가 전문대졸 이상이다(<표 1> 참조).

2. 연구 도구

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이 척도는 관찰 가능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행동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물질적 지지와 같은 책임감 측면까지도 포함한다. 양육참여는 자녀 돌보기, 자녀의 발달적 지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등 3 영역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84, .83, .80이다. 책임감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본 연구대상	1차연구대상
			빈도(%)	빈도(%)
유 아	연 령	33-35개월(21-23개월)	1(1.8)	3(3.6)
		36-38개월(24-35개월)	51(92.7)	77(92.8)
		48-50개월(36-47개월)	3(5.5)	3(3.6)
	출생순위	첫 째	25(45.5)	37(45.7)
둘 째		26(47.3)	39(48.1)	
셋째 이하		4(7.3)	5(6.2)	
성 별	남 아	33(60.0)	49(59.0)	
	여 아	22(40.0)	34(41.0)	
아 버 지	연 령	30세 미만	1(1.9)	4(4.9)
		30세-35세	24(44.4)	37(45.1)
		36세 이상	29(53.7)	37(45.1)
	교육수준	고 졸	12(22.6)	20(24.7)
		전문대졸	2(3.8)	6(7.4)
		대졸 이상	39(73.5)	57(67.9)
	소 득	100만원 미만	14(25.5)	21(25.3)
		100만원-200만원 미만	20(36.4)	34(41.0)
		200만원-300만원 미만	13(23.6)	18(21.7)
		300만원 이상	8(14.5)	10(12.0)
	직 업	전문 및 사무직	33(64.7)	46(61.3)
		판매 및 서비스직	11(21.5)	17(22.7)
생산 운수직		5(9.8)	10(13.3)	
단순노무, 농림어업		2(4.0)	2(2.6)	

무응답은 missing 처리하여 빈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안의 유아연령은 1차연구 당시 유아의 연령임

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을 포함하는 16개의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α 는 .85, .73이다.

2)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1차 연구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이영환, 1999 참조). 90개 문항으로 구성된 Waters(1987)의 애착 Q-Set (AQS: Attachment Q-Set)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가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기준 점수(36개월

용)를 사용하여 애착 안정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3) 유아-아버지 관계

Pianta와 Steinberg(1991)는 Waters와 Deane의 애착 Q-Sort(1985)의 부모-자녀 애착 분류에 사용된 유아의 행동을 근거로 유아-교사 관계척도(Student Teacher Relationship Scal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대신 아버지로 바꾸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갈등, 친밀감, 의존성 등 3개 하위척도, 30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 척도는 양육자-유아 관계가 적대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의 정도

를, 친밀감 척도는 양육자-유아의 온정과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의존성 척도는 유아가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가 각각 .81, .77, .67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Freniere와 Dumas(1992)의 유아 사회정서 프로파일(PSP: Preschool Socioaffective Profile)은 친사회적, 협동적 행동이나 안정감, 자율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사회적 유능성 영역, 분노나 공격성을 측정하는 외재적 문제 영역, 그리고 우울, 불안, 의존, 고립 등을 포함하는 내재적 문제 영역 등 3개 하위영역 30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가 각각 .83, .76, .73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1차 연구(이영환, 1999)에서는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은 아버지가 질

문지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2차 연구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1차 자료수집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1차 연구대상을 다시 접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이 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유아-아버지 관계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한 뒤, 우편을 통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은 어머니가, 유아-아버지 관계는 아버지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 연구대상 83쌍 중 60쌍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여 모두 55쌍의 유아-부모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차 연구대상과 본 연구대상 유아와 유아의 배경변인 특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2차 연구인 본 연구에서 탈락된 연구대상은 특정 집단이기 보다는 우연에 의한 탈락이라고 볼 수 있다.

4. 자료분석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 평균 점수는 0.34이며 범위는 -0.12에서 0.71의 분포를 보였다. 1차 연구인 이영환(1999)에서 3세 때 측정된 애착 안정성 평균 점수인 .33과 비교할 때, 후속 연구인 본 연구대상 53명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1차 연구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1차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사회성, 유아-아버지 애착관계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다음 분석에서 유아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의 유아 사회정서 능력 예측

아버지 노릇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하여 유아가 3세 때 측정했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4세 때 측정한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3세때 측정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1년 뒤 유아의 사회정서발

달을 예측하여 주지 못하였지만, 양육책임감은 부분적으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세때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이 높았던 아버지의 자녀는 1년 뒤 다른 유아에 비해 더 높은 유능성을 보였다. 또한 자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이 높았던 아버지의 자녀는 다른 유아에 비해 내재적 문제행동이 낮았다.

<표 2>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과의 상관관계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3세) \ 사회정서 프로파일(4세)	외재적 문제행동	내재적 문제행동	유능성
자녀양육참여 총점	-0.04	-0.10	0.14
발달적지지	-0.08	-0.14	0.17
돌보기	0.04	-0.03	0.11
함께 하는 활동	-0.11	-0.10	0.09
책임감 총점	-0.18	-0.26*	0.29*
자원제공자로서의 책	-0.23	-0.21	0.29*
자녀양육자로서의 책임감	-0.04	-0.26*	0.20

* p < .05

2.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의 유아-아버지 관계 예측

3세 때 측정한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이 4세 때의 유아-아버지 관계를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에서와 같이 두 점수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책임감이 아버지

-유아 관계 영역 중 의존이나 갈등은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친밀한 관계는 예측하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세 때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자녀 양육에서 자원 제공자로서의 양육 책임감이 높았던 아버지의 경우, 1년 뒤 측정된 유아-아버지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았다.

<표 3>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아버지 관계

유아-아버지 관계(4세)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3세)	양육 참여				양육 책임감		
		총점	발달적 지지	돌보기	함께하는 활동	총점	자원 제공자	양육 지지자
갈 등		-.01	-.01	.00	-.16	-.06	-.08	-.02
친 밀		.21*	.19	.14	.28*	.32**	.35**	.17
의 존		.10	.10	.12	-.04	.13	.06	.16

* p < .05, ** p < .001

3. 애착의 질의 유아 사회정서 능력 예측

3세 때의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안정/불안 애착이 4세 때의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 안정성 점수를 기준으로 안정집단과 불안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성 발달 점수 차를 알아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영환(1999) 연구에서 애착 안정성 점수가 상위 1/3 이상인 집단과 하위 1/3 이하인 집단을 선정하여 집단을 구분한 결과, 안정애착 집

단의 기준점수는 .43이었으며, 불안애착 집단의 기준 점수는 .25였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본 연구대상을 구분한 결과 21명이 안정애착 집단, 18명이 불안애착 집단으로 분류되었다.4) <표 4>에서 보듯이 3세 때 안정애착 집단에 속했던 유아는 불안애착 집단에 속했던 유아에 비해 4세 때 외재적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나,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은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을 부분적으로 예측하였다.

<표 4> 3세 때의 애착 유형에 따른 4세 때의 사회정서 능력 점수의 차이

집단	빈도	외재적 문제행동 평균(표준편차)	내재적 문제행동 평균(표준편차)	유 능 성 평균(표준편차)
불안애착집단	18(17)	27.65(7.44)	20.00(5.98)	37.19(5.27)
안정애착집단	21(20)	23.50(5.56)	19.00(5.38)	39.06(3.73)
t값		1.89 ⁺	0.54	-1.18

⁺ p < .1

4. 애착의 질의 유아-아버지 관계 예측

유아-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지속적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3세 때의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4세 때의 유아-아버지 관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5>에서

4) 본 연구는 이영환(1999)의 후속연구인 종단적 연구로서 유아의 안정/불안애착이 1년 뒤의 사회정서 능력을 예측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정과 불안애착의 기준점수를 1차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두 집단의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P < .1에서 검증하였다.

보듯이 3세 때의 애착 안정성은 4세 때 유아-아버지 관계를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지는 못하였으나 방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3세 때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4세 때 유아-아버지 관계에서 갈등과 의존성은 낮지만 친밀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애착 안정성과 유아-아버지 관계와의 상관관계

유아-아버지 애착관계(4세)	애착안정성(3세)
갈 등	-.13
친 밀 감	.10
의 존 성	-.25

* p < .01

5. 유아-아버지 애착관계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과의 관계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1년 뒤 측정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및 유아-아버지 관계를 예측하는지를 살핀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과의 동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과는 각 영역에서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유아-아버지 관계가 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재적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이 높았으며, 유아-아버지가 친밀한 관계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은 낮은 반면 유능성은 높았다. 유아-아버지의 의존적 관계는 유아의 유능성 발달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의존적일수록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표 6>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

유아-아버지 애착관계(4세)	사회성(4세)		
	외재적 문제행동	내재적 문제행동	유능성
갈 등	.27*	.35**	-.22
친 밀	-.28*	-.25	.33*
의 존	.27*	.31*	.03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이 유아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이 높은 아버지의 유

아는 1년 뒤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았으며, 양육 자로서의 책임감이 높은 아버지의 유아는 1년 뒤 내재적문제행동이 낮았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의 실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책임감이 유아의 사회정

서 발달을 긍정적으로 예측한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이영환 등, 1999) 개념은 아버지 노릇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 인식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다. 직장 업무나 여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녀 양육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양육의 실제에 보다 더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시간적으로 양육에는 덜 참여하지만, 자녀의 복지나 욕구, 관심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 책임감 영역이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했음은 Snarey(1993)의 주장처럼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은 아버지가 가족에게 잠재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물질적 자원 및 정신적 자원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유아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데 반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예측하기 어렵고, 덜 관습적이며, 활동적이고 탐색적이기 때문이다 (Pruett, 2000, p.27-28). 본 연구에서 양육참여 영역 중 발달적 지지나 돌보는 유아-아버지 관계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함께 하는 활동은 친밀감을 예측하고 있음은 어머니노릇과 질적으로 다른 아버지 노릇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 노릇의 내용과 방법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이 성장과정에서 유아의 긍정적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애착의 질의 발달적 결과

3세 때 안정애착 집단에 속했던 유아는 불안

애착 집단에 속했던 유아보다 공격성이 낮았다. 또한 3세 때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4세 때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과 갈등은 낮지만 친밀감은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어서 애착의 질이 이후의 사회정서발달을 예측한다는 애착이론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애착의 질이 사회정서 발달과 유아-아버지 관계를 부분적으로 밖에 예측하지 못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았던 이유로 연구대상 수가 53명으로 적은 표본이었으며, 다른 연구대상 유아에 비해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변별력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 평균점수는 .34이었으며, 불안집단과 안정집단을 구분하는 하위 1/3에 해당하는 안정성 준거점수는 .22였다. 아버지를 애착 대상으로 애착 Q-Set을 사용한 이영환(1994), 양미경, 조복희(2000)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는 .22와 .15, 준거점수는 .15와 .00이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종단적 연구로서 자녀 양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들이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모(이영 등, 1997)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애착의 질이 다양한 유아-부모 쌍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세 때의 애착 안정성이 4세 때의 사회정서 발달을 부분적으로 밖에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로,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사회정서 능력을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측정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되어 변별력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애착 Q-Set은 질문지를 사용한 일반적인 평정과는 달리 관찰자로서의 훈련과 90개의 관찰항목 분류를 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애착 Q-Set 가정관찰에서, 관찰자의 존재

는 아버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이영환, 1994, 1996) 가정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에게 보이는 행동을 평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신뢰할 만한 관찰자가 될 수 있다(이영 등, 1997)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애착 Q-Sort 가정관찰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어머니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타당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관찰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을 어머니 평가에만 의존함으로써 긍정적 평가에 치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효순(1996)은 안정, 불안애착 집단 간에 유아가 지각한 자아 지각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아는 전반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애착과 불안애착 집단 유아의 자아에 대한 내적 표상이 변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교사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평가할 경우 다른 유아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교사의 평가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을 또래와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교사 평가를 포함하는 애착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3. 유아-아버지 관계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

유아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일 때 유아의 유능성이 높고 공격성은 낮으며, 유아-아버지 관계가 갈등적이며 의존적일수록 유아의 불안·위축과 공격성이 높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양육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아의 애착은 내면화된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므로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박용임, 1998, p126)는 주장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양육 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적응에서 연속성을 감소시킨다(Easterbrooks & Goldberg, 1990, p227). 안정된 중류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Owen, Easterbrooks, Chase-Lansdale과 Goldberg(1984) 연구에서는 애착의 질이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편부모가족, 취업상황의 변화, 불안정한 가족관계 등 경제적으로 박탈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Vaughn, Egeland, Sroufe와 Waters(1979) 연구에서는 애착의 질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질은 상호작용의 질에 기초하며 따라서 민감한 상호작용에 대한 환경적 지지가 안정적일 때 연속성은 최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초기 안정/불안애착을 낳게 하는 양육환경은 아동의 자아 및 타인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환경의 지속성을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필수적이 되고 있는 오늘날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아버지 애착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유아-아버지의 관계 특성이 이후의 유아 발달을 예측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유아-아버지 애착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조직화되고 유아의 제 발달영역과 어떻게 통합되어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집단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생의 초기에 형성된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의 질이 이후의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힌다면, 거꾸로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발

생활 수 있는 사회정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생의 초기에 유아-아버지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

하도록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명(1997).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상미(1999).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1.
- 박용임, 유명희(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낯선상황 애착유형과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18(2), 33-46.
- 양미경, 조복희(2000).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 간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57-64.
- 유효순(1996). 애착의 안정도와 유아의 자아지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10-120.
- 이숙희, 김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영환(1996). 유아-아버지간의 실험실 애착유형과 가정에서의 애착안정성: 1세 낯선상황 분류와 3세 Q-Sort 관찰. **대한가정학회지**, 34(1), 177-187.
- 이영환(1999).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 **대한가정학회지**, 37(12), 91-102.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90.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 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 박사논문
- 조복희, 양연숙, 김압이, 장미자, 광혜경, 한유미(1997).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6), 249-259.
-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양육 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 홍계옥, 최경순(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4(1), 92-100.*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1990). Security of Toddler-Parent Attachment: Relation to Children's Sociopersonality Functioning during Kindergarten. In Greenberg, M.T., Cicchetti, D., & Cummings, E. M.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 Intervention*. University Chicago Press.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 in preschool in high 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147-16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Freniere, P. J., Dumas, J.E., Capuano, F. & Dubeau, D.(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Socioaffective Profile.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42-450.
- Geiger, B.(1996). *Fathers as Primary Caregivers*. Greenwood press.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Owen, M.T., Easterbrooks, M.A., Chase-Lansdale, P.L., & Goldberg, W.A. (1984).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the stability of attachments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55, 1894-1901.
- Pianta, R. & Steinberg, M.(199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heir kindergarten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iennial Meetings, Seattle.
- Pruett, K. D.(2000). *Father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The free press.
- Snarey, J.(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four-decad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 Verschueren, K. & Marcoen, A.(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 183-201.
- Vaughn, B., Egeland, B., Sroufe, L. & Waters, E.(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and eighteen months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